

오늘의 기사관

행사 (2일)
▲제 3회 서강정보대학·실업계 고교 경진대회 및 공동작품전=오전 11시 서강정보대학 문화관.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천세목(한국평생학습협회장)씨가 강사로 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
▲한국레이저가공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오전 10시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공기솔루션구소.
▲2006 학교도서관대회=2일 오후 1시30분, 3일 오전 9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3전시장·컨벤션홀·2층 회의실. 광주동부교육청 최도순 장학사가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을 통한 창의적 독서활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
▲제 488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

제 488회 장성아카데미 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군청 4층 대회의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우리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
▲진도개 학술세미나=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회의실.
(3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3일 오후 2시, 4일 오전 10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 초의선사 학술세미나 및 한국 차문화 관련 사진전 시회.
▲제 15회 광주무용제=2일 (금)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연극 ART=3~4일 오후 4시, 오후 7시 5·18 기념문화센터.
▲제 312회 진도 토요민속여행=3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 민속과

퓨전,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남도민요·진도북춤·퓨전음악과 푸리비나라 등 공연.
▲아가페코랄 정기연주회=3일(토) 오후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2006 젊은 연극제 참가작 락 뮤지컬 왕! 그의 이름은=3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호남대 생촌캠퍼스 소극장.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4일까지 오후 4시, 7시 공동예술극장.
▲제 9회 무등차문화대전=6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앞마당.
▲꿈, 너에게 말을 걸다 10인전=21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광주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14일까지 문화갤러리.
▲무등골 예술시장 프미마켓 '푸른6월'=13

일까지 일곱갤러리.
▲온나 제 2회 정기 전람회=7일까지 롯데화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진모임 '온나' 회원들의 작품 40여점 전시.
▲서양화가 신명자 개인전=7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풍경·정물·인물화 등 작품 49점 전시.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25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김점수 칠예전=8일까지 무등갤러리. 칠공예를 위주로 한 다양한 작품 전시.
▲프로젝트그룹 '아이콘'전=7일까지 지산갤러리. 김민정·안영찬·이정복 등 작가 8명이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작품 전시.

뉴스퀴즈

14. 독일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달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마지막 국내 평가전에서 2-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G조 마지막 상대인 이 팀을 가산한 모의고사로 치러졌습니까?
이 팀은 어디일까?
① 스위스 ② 일본 ③ 사우디아라비아 ④ 브라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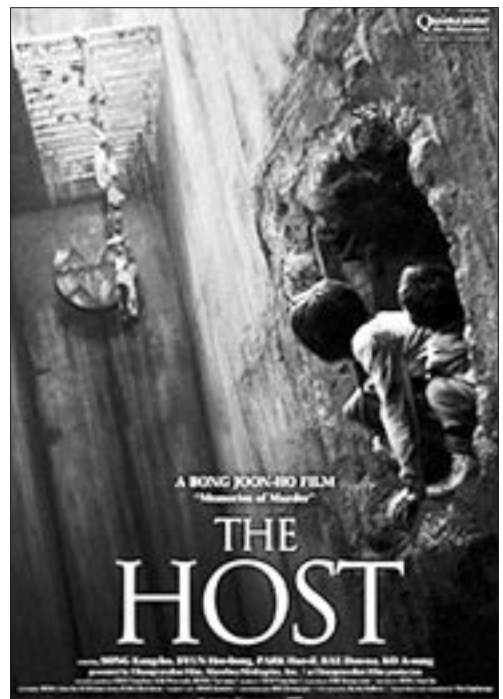
'5·31 지방선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당선자는 누구일까' 네티즌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당선자들에 대한 예기가 네티즌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다.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역대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선거가 한나라당 석권, 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나면서 여론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책임론, 당 해체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기현 역주행도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설기현은 지난달 23일 세제개편의 평가전에서 공격수로서 특별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 급기야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국축 페널티지역까지 드리블하면서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러나 설기현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 출장, 헤딩으로 골을 집어

5·31 지방선거, 민심은 무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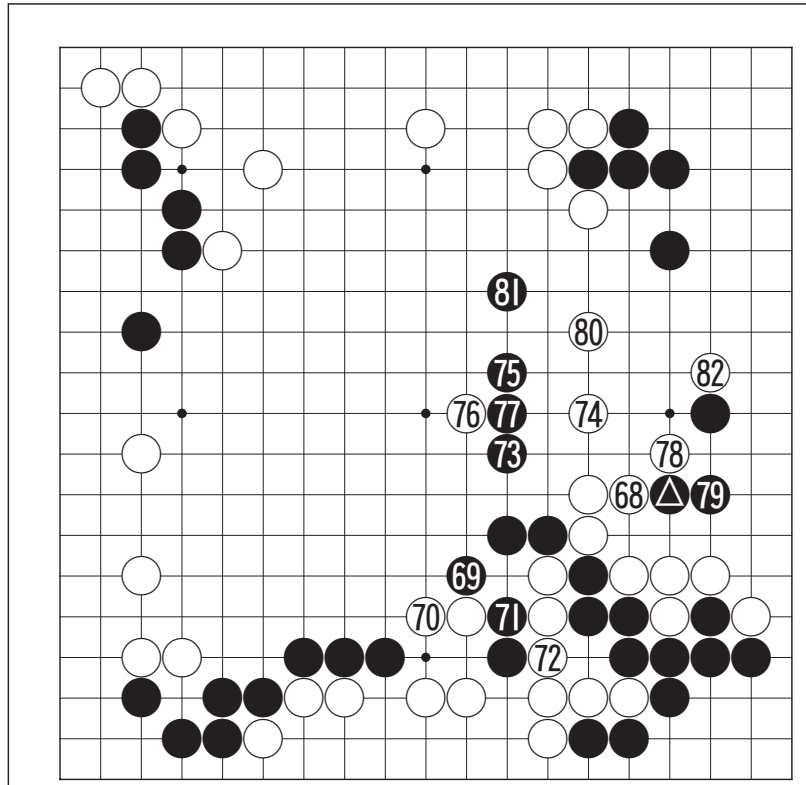
넣으면서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냈다.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와섬 중부 욕야카르타에서 발생한 리히터규모 6.3의 강진 피해 소식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이번 참사로 최소 5천여명이 숨지고, 20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앙이 최근 활동을 시작한 브라코 화산과 불과 80km거리여서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 세계에서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본보도 광주기독병원과 긴급의료지원단을 꾸려 인도네시아 현장으로 떠나 의료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 영화제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는 봉준호 감독·송강호 주연의 영화 '괴물'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 7월27일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해외시장에서 700만달러의 수입 판매를 이뤄내면

서 흥행성도 보장받았다. 변희봉·박해일·배두나 등이 출연했다. 화순출신 히트 드라마 작가 조소혜씨가 간암으로 숨진 소식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10분 간암으로 숨졌다. 50살. 조씨는 지난 1984년 KBS '드라마 게임-선택'으로 데뷔해 1995년 '젊은이의 양지'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배용준·최수종·이승연이 출연한 '첫사랑'(1996년)은 시청률 65.8%를 올려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강당성 검색어 (네이트닷컴 제공)
1위 설기현역주행 6위 신동엽결혼
2위 보스니아진 7위 무릎꿇음교사
3위 인도네시아지진 8위 월드컵경기일정
4위 조소혜 9위 교회사류년
5위 괴물 10위 초미니스크트



미국 뉴욕타임즈가 '칸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계비독대회

매서운 역습 2회전 제 5보(68~82)
박정규 5단의 행마가 쏘고 있다. 흑 80로 급소를 때렸으나 우변 흑 돌이 낮게 있어 파괴력이 떨어진다. 흑 81은 받아주기 기대한 수였으나 너무 안일했다.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흑 1로 밀어 돌 곳. 그런 다음 2를 기다려 3으로 뛰는 것이 수순이었다. 백 2를 생각하면 '가'에 끼우는 맛이 있어 고약하다. 대책없이 허를 찔린 박 5단이 하염없이 장고에 빠졌다. 과연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궁금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중국의 구리 9단이 지난달 31일 중국 강소성에서 열린 제20기 중국 천원전 도전 3경기 최종국에서 저우루이양 3단에게 284수 끝에 흑 3집 반승을 거두고 패권을 차지했다. 종합 전적 2승1패로 대국을 마감한 구리 9단은 지난 2003년 이후 대회 4연패 달성, 상금 20만 위안(한화 약 2천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구리 9단은 시종 단박한 행마를 보인 저우 3단을 초반부터 몰아붙여 여유있게 승리를 낚았다. 15세 소년기사인 저우 3단은 중국 천원전 도전기 역사상 최연소 도전자로 남게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 (음 5월 7일 壬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659>

Let me see 글세요
A: Can you see what's wrong with this scheme?
B: Let me see... I have no idea.
A: You see. There's no way we'll have enough funds for this section.
B: I see.
A: 이 계획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자네 알 수 있겠는가?
B: 글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A: 이보게나, 우리가 이 부문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네.
B: 네 그렇습니다.
what's wrong with ~? = 무슨 문제가 있는가?
scheme : 계획(=plan)
Let me see : 글세요(=let's see.)
I have no idea. = I haven't a clue(=정보).
You see. :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 중에 강조조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함.
I see. = I understand.

오하이오 니혼고 <659>

あの子(こ)、目(め)がおかしいんじゃない
저 애, 눈이 뻥 거 아니?
A: あの子(こ)、目(め)がおかしいんじゃない。
B: どうして?
A: あんな男(おとこ)におぼれているからだ。
B: だから、あばたもえくぼと言(い)うんじゃない。
A: 저 애, 눈이 뻥 거 아니?
B: 왜?
A: 저런 남자에게 눈이 멀었으니까 말야.
B: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잖아.
目(め) : 눈
おかしい : 이상하다
おぼれる : 빠지다
あばた : 곰보
えくぼ : 보조개
あばたもえくぼ : 좋아하면 곰보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뜻.
→ 제 눈에 안경.

니하오 쑹구위 <377>

张东民先生在哪?
장동민씨 계십니까?
A: 张东民先生在哪?
Zhang Dongmin xiansheng zai na?
(장 동민 선생님 어디에?)
B: 他不在这, 出去了。
Ta bu zai zhe, chiqu le.
(그는 여기서 안 계시고,出去了)
A: 什么时候回来呢?
Shenme shihou lai ne?
(언제 오실까요?)
B: 下午三点左右。
Xia wu san dian zuo you.
(사이에 오후 3시쯤 주위입니다)
A: 张东民先生, 请坐!
Zhang Dongmin xiansheng, qing zuo!
(장 동민씨, 앉으세요)
B: 谢谢!
Xie xie!
(고맙습니다)
A: 您请坐!
Nin qing zuo!
(당신 앉으세요)
B: 谢谢!
Xie xie!
(고맙습니다)
A: 您请坐!
Nin qing zuo!
(당신 앉으세요)
B: 谢谢!
Xie xie!
(고맙습니다)

한자 이야기 <977>

覇者(패자)
으뜸 패, 놈 자
패자(覇者)는 무력(武力)으로 천하를 정복한 제후(諸侯)의 우두머리이다. 현재는 어느 일정(一定) 부문(部門)에서 패권을 차지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패(霸)는 우(雨) : 하늘 모양 + 혁(革) : 속 벌어지는 쉰 형) + 월(月)로, 그달과 초승달의 경우 희미하지만 하얗게 보이는 달의 전체 모습에서 하얗다(白)가 나왔고, 다시 우두머리(伯)로 전용되었다. 자(者)는 화로 위에 밑줄을 태우는 모습이지만, '이것' 또는 앞의 말을 받는 조사로 사용된다.
주나라 12대 유왕(幽王)의 실정(失政)으로 주나라는 멸망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졌다. 기원전 8세기 중국은 이때부터 약 300년간 제후국이 난립하는 춘추시대가 된다. 제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군웅할거(群雄割據),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이다.
이 같은 난세(亂世)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후를 통솔할 실력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 실력자를 패자(覇者)라고 불렀다. 춘추시대를 통틀어 다섯 사람이 있었고, 이를 춘추오패(春秋五霸)라고 불렀다. 판포지교(管仲之交)의 주인공인 관중과 포숙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패자가 된 사람이 제나라의 환공(桓公)이다.